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2019년 동남권경제는 1.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 3년간 지속된 0%대 성장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다만 전국 성장세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경제 전반의 활력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 불황을 겪어왔던 조선이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중 부진했던 자동차, 철강도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계, 석유화학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성장 폭은 둔화되었으나 성장세는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 경기개선의 긍정적 영향 및 정부 소득기반 강화정책 등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규제 강화에 따른 신규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양호한 성장이 기대되나 불확실성 증가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같은 3.7%로 전망된다. 선진국(2.1%) 및 신흥시장국(4.7%) 모두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심화, 신흥국 금융불안 등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민간소비 증가, 기업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는 고용회복, 임금상승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일본도 고용시장 개선, 수출 증가세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기대된다.

또한 인도가 고성장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수출국도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성장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과 기업 및 정부 부채 리스크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계	3.5	3.3	3.7	3.7	3.7
선진국	2.3	1.7	2.3	2.4	2.1
(미국)	2.9	1.6	2.2	2.9	2.5
(유로)	2.1	1.9	2.4	2.0	1.9
(일본)	1.4	1.0	1.7	1.1	0.9
신흥국	4.3	4.4	4.7	4.7	4.7
(중국)	6.9	6.7	6.9	6.6	6.2
(인도)	8.2	7.1	6.7	7.3	7.4
(브라질)	-3.6	-3.5	1.0	1.4	2.4
(러시아)	-2.5	-0.2	1.5	1.7	1.8

자료 : IMF

국내경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고조

2019년 국내경제는 올해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여 발표하는 등 경제활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득기반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 효과로 올해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소비심리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저효과 및 조선 등 제조업황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되겠지만 건설투자는 신규 주택착공 부진 등으로 올해보다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견조한 수입수요를 감안할 때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의 부정적 영향, 취약 신흥국 불안 및 반도체 수출 둔화 등으로 금년에 비해 증가폭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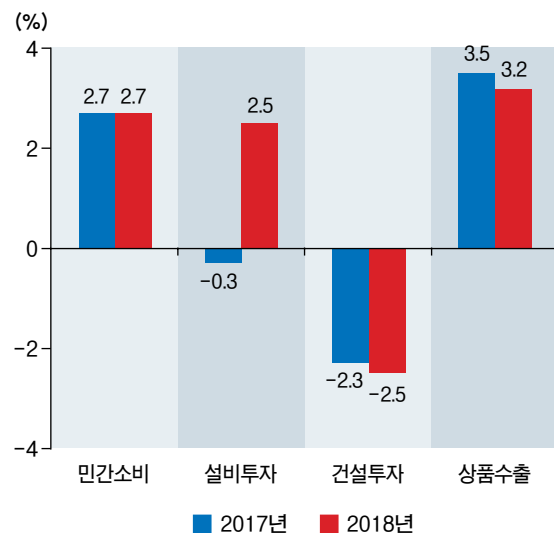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기관	2018	2019
한국개발연구원 (18.11)	2.7	2.6
한국은행 (18.10)	2.7	2.7
IMF (18.10)	2.8	2.6
9개 해외투자은행 (18.10)	2.8	2.7

주 : 1) Barclays, BoA-ML, Citi, Credit Suisse, Goldman Sachs, UBS, JP Morgan, HSBC, Nomura 평균

자료 : 각 기관, 국제금융센터

국내 부문별 성장률 전망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경제,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1.7% 성장률 기록할 전망

2019년 동남권경제는 1.7%의 성장률을 시현하면서 지난 3년간 지속된 0%대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국 성장세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경제 전반의 활력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 불황을 겪어왔던 조선이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중 부진했던 자동차, 철강도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계, 석유화학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성장 폭은 둔화 되겠으나 성장세는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 경기개선의 긍정적 영향 및 정부 소득기반 강화정책 등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설업은 부동산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남권 부동산시장의 경우 미분양 물량¹⁾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사상최고치인 7만 4천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량 부담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동남권 경제성장률 전망¹⁾²⁾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동남권	2.0	1.2	0.6	0.4	0.3	1.7
전국	3.3	2.8	2.9	3.1	2.7	2.7

주 : 1) 동남권 경제성장률은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 추정치(2017년, 2018년) 및 전망치(2019년)

2) 전국은 한국은행 추정치(2018년) 및 전망치(2019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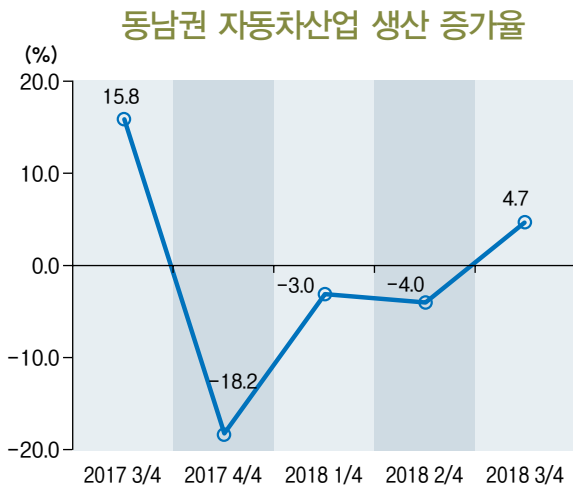
1) 2019년 9월말 기준 동남권 미분양물량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8.9% 증가한 1만 9천호 수준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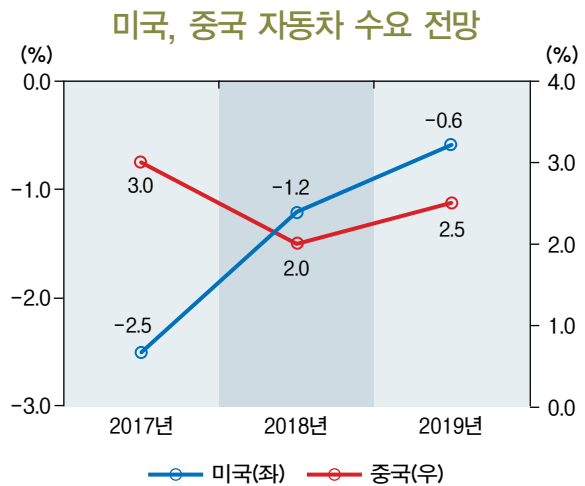
동남권 자동차산업 생산은 완성차 업체의 판매부진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에따라 자금사정이 열악한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경영 어려움이 확대되는 등 자동차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었다. 하지만 전국과 달리 3/4분기 들어 회복세²⁾를 보이는 등 국내 자동차 업황은 권역별로 온도차를 보이는 상황이다³⁾.

동남권 자동차 업황은 내년에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이 사드갈등 완화 효과, 수요 확대 등으로 늘어나고 미국으로의 수출 부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19년 중국의 자동차 수요 증가율이 금년(2.0%)보다 높은 2.5%를 시현하고 미국의 판매부진 폭도 금년(-1.2%)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수시장의 경우도 완만한 회복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수입차 수요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는 국산차 판매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신차출시 효과, 친환경차 판매호조 및 정부지원 강화 등이 실적 개선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Mood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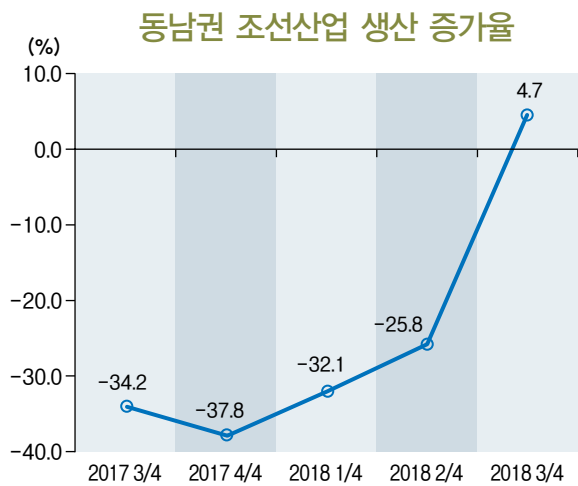
2) 다만 동남권 자동차산업 생산은 금년 3/4분기 들어 현대차 수출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4.7%)로 전환. 전국의 경우 기아차, 한국GM 등 일부 업체의 부진 심화 등으로 생산 감소세(-7.0%) 지속
3) 2018년 1~9월 평균 권역별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를 살펴보면, 현대차가 주축을 이루는 동남권(94.2)이 기아차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을 겪은 호남권(74.4)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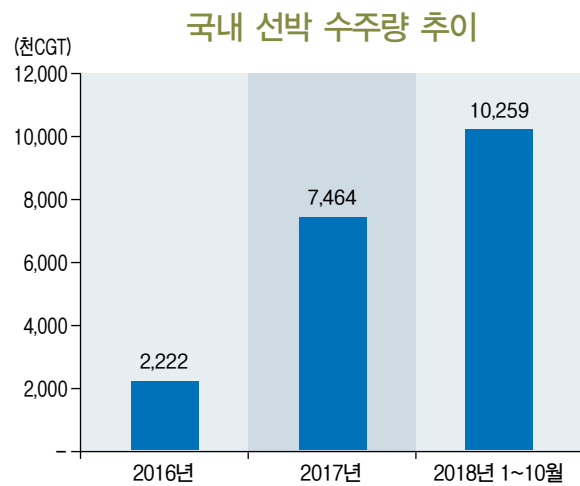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전세계 선박수주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조선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년 1~10월중 국내 조선업은 전년동기대비 71.0% 증가한 1,026만CGT를 수주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다⁴⁾. 이에따라 전세계 선박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기간 27.5%에서 42.0%로 상승하며 중국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

내년에도 수주 호조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교역량 호조세,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LNG선 발주 확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MO 환경규제 시행⁵⁾을 앞두고 선사들의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2019년 동남권 조선업 생산은 6년 만에 플러스 성장세를 시현하며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정부의 중소형 업체 중심의 지원 정책⁶⁾도 조선업계 전반의 활력회복에 힘을 보탬 것으로 판단된다.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2018년은 1~10월 누적
자료 :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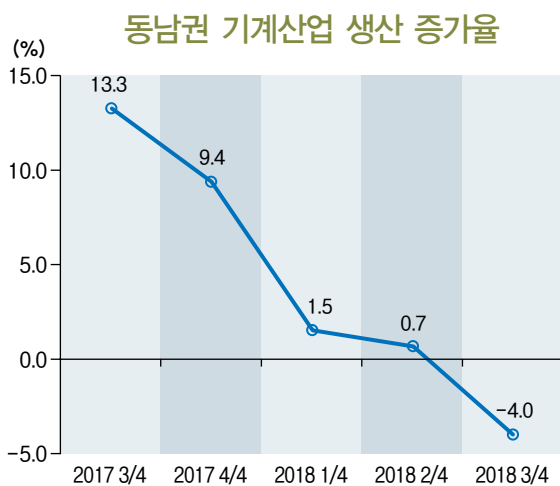
4) 2018.1~10월중 중국의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하였으며 일본은 24.4% 증가
5) 황산화물(SOx) 배출규제는 2020년 1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2019년 9월부터 시행
6) LNG연료추진선 140척 발주, 7천억원 규모 신규 금융지원, 1조원 규모 만기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2018.11.22.일 발표)'은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활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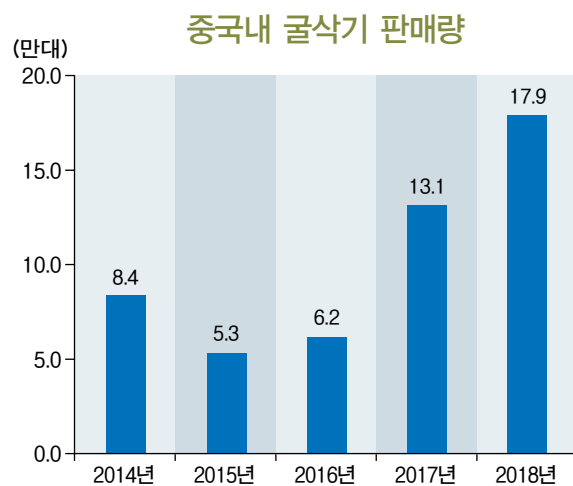
동남권 기계산업은 수출 호조세 지속⁷⁾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이 부진하면서 최근 들어 업황활력이 다소 약화된 모습이다. 생산의 경우 금년 상반기중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나갔으나 3/4분기 감소세를 기록함에 따라 2018년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출 및 내수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큰 폭의 성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은 중국의 굴삭기 판매 증가, 노후장비 교체 및 베트남·인도 등의 설비투자 확대로 증가세가 지속되겠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 및 취약 신흥국 경제불안 등이 증가폭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시장의 경우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건설광산기계부문이 부진하겠으나 조선, 자동차 등 전방산업 개선에 따른 공작기계부문이 나아지면서 올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자료 : Fn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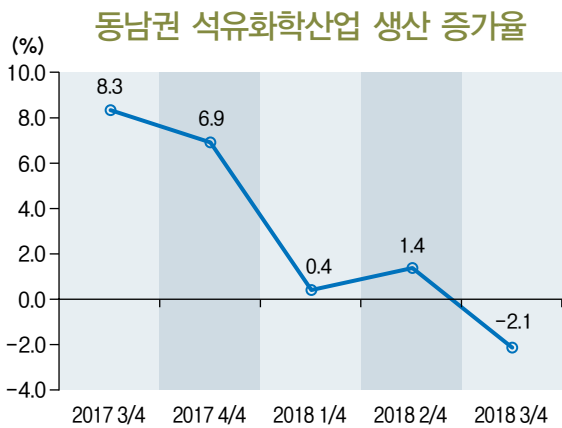
7) 동남권 기계산업 수출은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3.4% 증가세를 시현. 기계산업 수출은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기계요소공구및금형, 기타기계류의 합계로 계산

석유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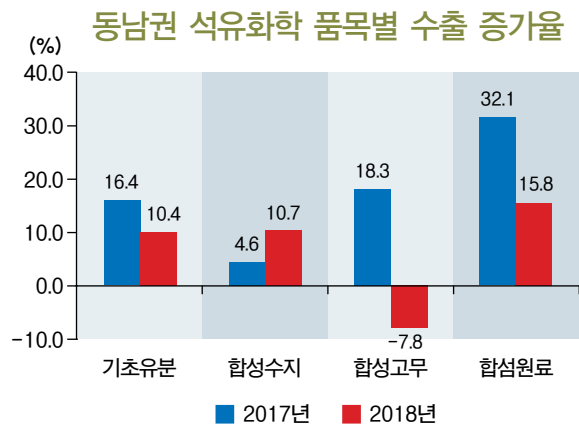
동남권 석유화학산업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세로 상반기까지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다. 3/4분기중에는 미중 무역전쟁 및 국내업체 정기보수 등으로 생산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금년에도 완만한 성장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1~10월중 품목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수급 상황이 타이트한 합성수지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0.7% 늘어나며 증가폭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유분 및 합성연료의 경우도 높은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성고무는 중국시장 경쟁심화 등으로 감소하면서 수출 증가폭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성장세는 이어나가겠지만 성장 폭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 등 전방산업 부진으로 내수개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제품 가격 경쟁력 약화⁸⁾, 미국 ECC(에탄분해설비) 설비가동 본격화에 따른 공급 확대⁹⁾ 및 중국 자급률 제고¹⁰⁾ 등이 수출 확대를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18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8) 국내 업체들은 원유를 원료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NCC(Naphtha Cracking Center)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유가 상승은 가격 경쟁력 하락요인으로 작용
9) 2019년중 ECC 신규설비 가동에 따른 에틸렌 공급량은 1,1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세계 연간 에틸렌 수요 증가분(650만톤)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10)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중국 자급률이 2010년 60%에서 2016년 80%, 2020년에는 9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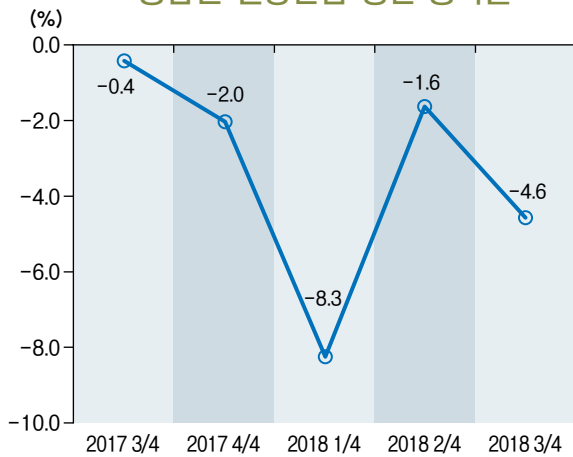
철 강

동남권 철강산업은 금년에도 생산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외수요 둔화 및 국내 철강수요중 약 80%를 차지하는 건설, 자동차, 조선 등 3대 전방산업 부진¹¹⁾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국내 제조업황 개선에 따라 미약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철강협회에서는 올해 -4.1%의 감소세를 기록한 한국의 철강수요가 내년에는 증가세(1.1%)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대외여건은 업황 개선에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국 수요는 올해보다 늘어나겠지만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부진으로 글로벌 철강 수요 증가율은 금년(3.9%)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1.4%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시행된 EU, 캐나다 등의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동남권 철강산업 생산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세계 철강수요 증가율 전망

구분	세계 ¹⁾	중국	미국	ASEAN	한국
2017년	5.0 (2.4)	8.2	6.4	-4.3	-1.2
2018년	3.9 (2.1)	6.0	2.3	3.8	-4.1
2019년	1.4 (2.7)	0.0	1.3	6.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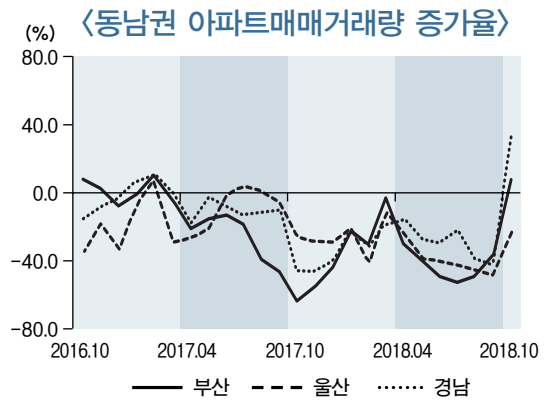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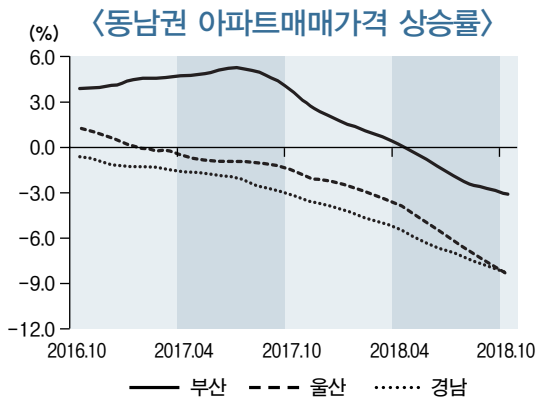
주 : 1) ()내는 중국 제외시 수요 증가율
자료 : 세계철강협회 (2018.10월)

11) 국내 철강산업의 내수 구조를 살펴보면, 건설(34.0%), 자동차(30.0%), 조선(14.4%) 등 3대 업종이 철강업 전체 출하중 약 80% 비중 차지(2017년 기준)

[참고]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최근 동향

- 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은 2017년 10월 이후 마이너스 전환
 - 경남은 2016년 9월, 울산은 2017년 2월 이후 아파트매매가격이 하락하였으며 부산의 경우 금년 5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
 - 2018년 1~10월중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경남(-6.3%)의 하락 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울산(-5.2%), 부산(-0.8%) 순임
- 아파트매매거래량의 경우 2017년 3월 이후 감소세 지속
 - 2018년 10월 거래량 증가는 9·13 부동산대책 직전 매매거래 신고 접수가 10월에 이루어진 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



향후 전망

-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
- 내년 입주예정물량도 7만 4천호에 달하며 금년 수준(6만 8천호)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은 높아질 전망

[지역별 입주(예정)물량]

- 동남권 : 69,982호(2017년) → 68,341호(2018년) → 74,478호(2019년)
- 부 산 : 20,381호(2017년) → 23,853호(2018년) → 25,615호(2019년)
- 울 산 : 9,034호(2017년) → 9,448호(2018년) → 11,018호(2019년)
- 경 남 : 40,566호(2017년) → 35,040호(2018년) → 37,845호(2019년)

[참고문헌]

통계청, www.kosis.kr
 한국감정원, www.kab.co.kr
 한국금융연구원, “2019년 경제 및 금융산업 전망,” 2018.11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석유화학협회, www.kpia.or.kr
 한국수출입은행, “해운조선업 2018년 3분기 동향 및 2019년 전망,” 2018.11
 _____, “최근 석유화학산업 3대 이슈,” 2018.1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8.10
 Danish ship finance, “Shipping Market Review,” 2018.5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10
 Moody’s, www.moody.com
 OECD, “Economic Outlook and interim Economic Outlook,” 2018.9
 WSA, www.worldsteel.org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수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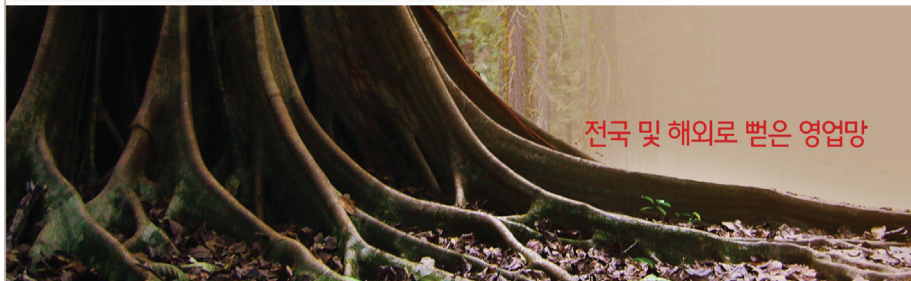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대한민국 5대 금융그룹



51년 길고 곧은 역사



전국 및 해외로 뻗은 영업망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 레드우드 처럼
대한민국 금융생태계에 가장 높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레드우드는 100m 이상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입니다. 한 거목에는 6개의 가지와 200개 이상의 2차 몸통이 있고 일관 토양 220kg에 달하며, 잎의 총 무게는 1.5톤이 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생명체로 회청한 남미 속의 묘목이 매년 1.8m씩 자랍니다. 그 높은 키를 지탱하기 위해 숲을 이룬 결의 다른 레드우드들과 뿌리를 공유하며 300년간 100m 이상의 거목으로 자라납니다. 레드우드의 규모는 수목의 모든 기록을 갱신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레드우드 중에는 수령 2,000년을 넘긴 나무도 있습니다. 나뭇결이 아름답고 색채가 고귀하며 도장이나 착색 효과가 좋아 무늬목, 목재 제품, 원이나 장품, 벽면의 제작 등에 쓰고 부식에 강해 목회용 기구 목재로도 쓰이는 등 인간에게 헌신하는 나무입니다.

BNK 금융그룹

BNK BNK금융지주

제2018-11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8년 11월 29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